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김경년 베드로 오일공-육구삼-공구이공

평협회장: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둘-이오팔공

선종회장: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3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백) 설(하느님의 말씀 주일)

2023년 1월 22일 (제2016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

근무시간: 수(9am~5pm) 목(6pm~9pm) 토/일(9am~5pm)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신심 단체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성 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 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민수기 6,22-27

화답송 시편 90(89),2와 4.5-6.12-13.14와 16(◎ 17ㄱ)

-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우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

제2독서 야고보서 4,13-15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2,35-40

영성체송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또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 성가 ]	8시	입당 463	봉헌 215	성체 167	파견 423		
	11시	입당 2	봉헌 215	성체 166	151	파견 77	
설	1월 22일(주일)		1월 24일(화)	1월 25일(수)	1월 26일(목)	1월 27일(금)	1월 28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미경 말가리다	이순열 안드레아	정미경 말가리다	이명련 파트리샤	황혜정 데레사	이명련 파트리샤	허홍숙 세실리아
독서	강신호 요한 이선미 에스더	이기만 베드로 이진의 안젤라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정인경 가브리엘라	이명란 아네스
제의방	이선미 에스더	정인경 가브리엘라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 **견진성사 안내**

- 일시 : 2023년 1월 29일(일), 교중 미사 중
- 주례 : 오클랜드 교구장 마이클 바버 주교님
- 교리 : 교육관 106호실

(교리공부를 하실 분은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5) 2023년 1월 22일, 오후 1시 기도생활과 견진예식

※ 견진교리 두 번 이상 빠지면 견진성사 받을 수 없습니다.

■ **설날합동위령미사 신청**

- 1월 22일(일)은 설날입니다.
- 분향 중에 합동위령미사 지향자와 봉헌자가 함께 낭독됩니다.
- 교중미사 후에 성모회에서 직접 빚은 만두로 점심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 설날 교중미사에 성수 축복 예식이 있습니다.
- 1월 22일(일) 오전 8시 미사는 있습니다.  
8시미사 후에 떡나눔이 있습니다.

■ **봉헌초 신청**

- 2월 2일(목)은 주님봉헌축일입니다.  
일 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복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 **성경 통독**

- 1월 집회서 (읽기 분량 : 집회서 20장1절-23장28절)

■ **봉성체**

- 포스터시티 요양원: 1월 26일(목), 오후 1시

■ **토요일미사 전례 봉사자 안내**

- 2월 4일(토) 오전 11시 미사 : 성모신심미사, 꾸리아

■ **친교실 본당 게시판**

- 본당 조직도와 월중계획표를 게시했습니다.

■ **회의 및 모임**

- 꾸 리 아 : 2월 4일(토) 오전 9시 교육관 106호
- 재정위원회: 2월 5일(일) 오후 1:30 교육관 107호(본당재정감사)

■ **구역모임**

- 알 바 니 : 1월 22일(일) 오후 1시 대건관 소망방
- 오 클 랜 드: 1월 22일(일) 오후 1시 교육관 107호
- 샌리앤드로: 1월 22일(일) 오후 1시 교육관 Dining Room

■ **2023년 교무금 책정**

- 본당 입구에 교무금 약정서를 작성하셔서 2023년 1월31일까지 마련된 박스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 **밥나눔 안내**

- 오늘 밥나눔은 없습니다.
- 다음 밥나눔은 2월 5일에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 수거**

- 쓰레기 분리 수거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초록색 쓰레기통: 음식물 찌꺼기, 회색 쓰레기통: 재활용, 고등색 쓰레기통: 그 외 쓰레기

■ **공동체 기도 지향**

송성관 토마스, 부흥신 마티아, 한서연 수산나, 송인환 토마스, 박영자 마리아, 신선아 헬레나, 심연자 데레사, 박영자 클라라, 조상희 마리아, 송정현 헬레나, 신정열 올리엠타, 정연중 비오 최환준 분도,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김관속 크리스티나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본당 청소 (매주 토 11시30분)**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헤어컷 봉사**

- 오늘 교중미사 후, 육아가다 자매님 헤어컷 봉사가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설 차례 준비와 떡만둣국 준비해주신 성모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 한 주간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안젤라(1/27) : 김영선, 임승주, 한계순, 원은규, 김수연
- \* 토마스 아퀴나스(1/28) : 홍승천, 채성일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 [ 봉사하는 교회 ] 봉사란?

**봉**사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 봉사를 의무로 하며 생활하는 교회의 양상을 말할 수도 있으나 또 한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봉사라는 뜻도 될 것이다. 즉 교회란 봉사하기 위해서 모인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된다.

한국의 근대를 역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경제 개발의 시대, 중공업화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은 고층 건물이 밀립하고 경부 간에는 고속도로가 뚫고 곳곳에는 공장 굴뚝이 치솟아 새로운 풍경을 이루는 등 우리는 조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보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모든 것이 편리해져만 간다.

이런 물질적인 발전에 비해 정신세계는 어떤가? 정신 세계를 조금이라도 간파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말한다. 『경제 발전은 이루어지고 물질은 풍부해졌으나 정신은 빈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정신 빈곤의 결과는 바로 부정부패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서 빛어지는 온갖 썩이다. 우리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한 와우아파트 붕괴, 정녀인 살해 사건 등은 그 중에도 표본적인 사건들일 것이다.

그러면 정신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무도 이 질문에 만족한 대답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정신이 결핍되면 인간은 한갓 육신만 가진 동물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정신의 가치로써 평가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중요한 정신이 우리 사회에 결여돼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인간 생활에 있어 근간이 되는 봉사 정신을 진작하고 실천하는 데 일익이 되고자 본보는 앞으로 몇 개월간 「봉사 정신」에 관하여 본란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다.

그러면 먼저 봉사란 무엇이며 인간은 봉사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인간이 수행하는 직책과 직장은 봉사이고 종교도 봉사를 주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뜻에서 앞으로 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나누어 살피기로 하겠다.

- ① 봉사란 무엇인가?                      ② 인생은 봉사
- ③ 직업은 봉사                                ④ 종교는 봉사
- ⑤ 맺는말

### ① 봉사란 무엇인가?

봉사는 남의 뜻을 받들고 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남이 없으면 봉사를 이루이지 않는 것이다.

남을 위해서 생각하고 남에게 관심을 두고 남이 원하는 것을 해 주고 남의 앞날을 위해 도와주며 남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 봉사이다. 그래서 봉사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는 상반된다. 남을 위한 행동과 노력이 봉사이기 때문에 봉사는 또 사랑의 표현 그 자체이다.

인간의 사랑은 입으로나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으로써 해야 하는 것이다. 봉사으로써 구체화하지 않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될 수 없고 또 사랑이 결여된 봉사는 품팔이처럼 상품화될 우려가 많은 것이다.

봉사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발적이며 조건이 없고 항구적이다. 그래서 봉사는 남에게 요구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봉사했으니 이젠 네가 나에게 봉사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봉사는 끝까지 성의를 다하는 데 그 정가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 봉사하고 이젠 이만큼 했으니 봉사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봉사한 가치는 물거품처럼 단번에 스러지고 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가 10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이제는 봉사 받아야겠다」라고 했다면 이 사람의 봉사는 아무런 가치 없는 장사꾼의 속셈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봉사는 조건이 없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봉사만 하고 살 수는 없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시간을 제공한다면 나는 생활의 위협을 면치 못하며 먹고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봉사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봉사는 언제든지 상호관계를 이룬다. 서로가 다 남을 위한 봉사를 한다면 생의 위협을 받을 리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법과 질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만 갖고서 사회 질서와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법 자체가 봉사 정신에 의해 실행되어야 올바른 사회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 준법자들이 이기주의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사회악은 근절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을 위하는 정신으로 법을 실행해야 법은 참으로 제구실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다.

봉사는 상호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알 수 있다.

먼저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을 봉사으로써 바쳐야 할 것이다. 자기의 기술과 재능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참으로 좋은 물품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감독이나 파면이 무서워서 마지못해 노동하거나 억지로 시간이나 채우는 것은 벌써 봉사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비하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 노동력만 착취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한다는 것은 봉사 정신에 위배된다.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 즉 자기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임금과 또 장래를 위한 배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노동자를 위한 봉사이기 고용주에게 있어야 하며 그래야 올바른 경영과 인사 관리가 수행될 것이다.

봉사가 남을 위한 것이라면 인간은 남을 위해서 태어났고 인생은 바로 봉사이다. <계속>(출처: 가톨릭신문 726호, 1면)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34명	172명	206명

성탄대축일		2차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Bishop's Appeal	천사기금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b>교무금:</b> 이현옥(1-12/22), 권영현(1-3), 김영자(12/22), 이병열(1-3), 강신호(1), 김영희(1), 박마가렛(1-12/23), 김학철(1-2), 김정림(1-6), 박명호(1-6), 정석준(7-12/22,1-2/23) 이영기(1), 이덕용(1), 유낙양(1-2), 정순자(1-2), 이선희(10-12/22), 권종욱(1), 황혜정(1-6), 신기수(1-3), 임석호(1) 김복희(1-2), 김영민(12/22)					박마가렛 이덕용 이선희 황혜정	박명호 임영순 김복희	박마가렛 이덕용 이선희 황혜정, 김영민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1/22(일)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로(명국)	1/24(화)	생	심테레사	유수산나(진숙)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연	전안드레아/정시문	전마리아 /아네스	1/25(수)	연	윤바로(천호)	윤세레나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가족		연	이연성	조분도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조바울라(숙자)	조바실리오(진행)				
	연	이아고보(원진)	가족				
	연	박아브라함(인준)	박로사가족	생	Fr.최기홍바르톨로메오	주마리아(정희)	
	연	김시몬(형준)	김클라라(영미)	생	JIMMY CHOO	주마리아(정희)	
	연	정베드로(창희)	정아가다(청자)	생	박카타리나(용숙)	유베로니카(낙양)	
	연	민클라라(정희)	민제노베파	생	박헬레나(호영)	이베로니카	
	연	김마르코	가족	생	김크리스티나(관숙)	유베로니카(낙양)	
	연	정미카엘	가족	생	유병진야고보	유베로니카(낙양)	
	연	이마리아(호순)	이에스터	생	유병호안드레아	유베로니카(낙양)	
	연	부모형제	윤사비나	생	Fr.최기홍바르톨로메오	이에스터	
	연	불쌍한모든영혼들	임루시아(윤택)				
	연	조상님들	임루시아(윤택)				
	연	부모님가족친지들조상님	전데레사	1/26(목)	연	장바로(대식)	장루시아
	연	서데레사	정베드로		연	이연성	조분도
	연	정요셉	정베드로				
	연	김요한	정분다				
	연	홍모니카	정분다	생	김크리스티나(관숙)	유리디아(윤택)	
	연	지요셉형제,번카타리나부영	박프란치스코희용	생	김프란치스코	황데레사	
	연	박해철,김영순,박희덕	박프란치스코희용				
	연	이아가다(윤자)	김영희엘리사벳				
				1/27(금)	연	이연성	조분도
	생	이미카엘(한진)	가족				
	생	장민우	송아네스				
	생	이아네스(선영)	박마가렛(미아)	1/28(토)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로(명국)
	생	NORM BARNES	익명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생	박안나(남희)	박마가렛(미아)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생	인	김젬마(영순)		연	이아고보(원진)	가족
	생	김아네스(옥순)	임안젤라(승주)		연	황마리아	박헬레나
	생	김바로/폴리나가족	최폴리나(미혜)		연	홍승천토마스아퀴나스	염파트리샤
					연	이연성	조분도
1/24(화)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로(명국)				
	연	이아고보(원진)	가족	생	이인국Justin	이막달레나(선희)	
	연	최젬마(정자)	이안토니오(동재)	생	이요셉(인평)	이막달레나(선희)	
	연	이연성	조분도	생	채토마스아퀴나스(성일)	채헬레나(용분)	

<b>대 건 한 의 원</b> <b>한의학박사 이준</b>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개선·건강상담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	<b>조미정 공인회계사</b> <b>세금보고 및 회계감사</b> <b>Business Consulting</b> ☎ (925)803-0200 Fax (925)803-0204	<b>광고 문의</b> <b>성당 사무실</b> 510-553-9434	<b>J &amp; J Auto Service</b> <b>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b> ☎(510)236-0550 <b>강요한</b>	<b>광고 문의</b> <b>성당 사무실</b> 510-553-9434
---	--	---	--	---